

주기도문 V.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11]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다.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치셨다. 무슨 말인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란 누구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만이 아닌 우리(인간)의 아버지도 되신다고 가르쳐 주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인식'해야 한다.

2.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를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늘 아버지에게' 드리는 기도는, 주문이 아닌 이 땅에서 실체가 된다.

3. 인간의 존재와 양식과의 관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주기도문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1) 양식은 생존을 의미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소서'로 해석할 수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이라는 단어와 '필요한 양식'이라는 단어이다. 양식은 무엇인가? 인간을 생존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인간은 양식을 먹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 인간의 삶을 영위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인간은 먹어야 생존할 수 있다. 양식은 실제로 인간의 생명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다. 다른 어떤 중요한 것도 '양식'과 비교 할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다.

(2)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한다는 것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하라는 것인가? 아니다. 주기도문의 첫 기도구절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됨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한다. 결국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고, 그로 인한 인간 본연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먹고 살 양식이 없으면 인간은 생존할 수 없다는 말이다.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이시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것이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안정감이 되는 것이다.

(3) 광야의 양식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다.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가 있었다. 바로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를 하며 먹고 살았던 세대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 시키셨고, 그들을 광야로 부르셨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날마다 친히 먹이셨다.

[출애굽기 16:4]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 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들이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출애굽기 16:16-19]

16.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 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17.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니,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으나,

18.오멜로 되어 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씩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19.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 두지 말라고 하였다.

말씀에 보니 '하늘에서 양식을 비 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4절) 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음식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었다. 무슨 말인가? 누가 그 양식을 먹이시는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녀를 친히 먹이시는 것이다.

* 먹을 만큼 충분히 공급하신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18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 부족함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주님은 말씀 하셨다. "인간의 존재가 먹고 사는 존재라면 그들은 '나의 자녀'들이 아니다. 그들은 '이방인'이다." 라고 말씀 하셨다.

[마태복음 6:31-32]

31.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32.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이방인의 정의는 무엇인가? '염려와 근심이 있는 불안한 존재'라는 것이다. 불안함,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을 말한다. 염려가 있는 인생이 어떻게 안정적일 수 있겠는가? 왜 두렵고 불안함으로 염려가 가득한가? 믿을 곳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정감'의 의미는 '하나님 품 안'을 말한다. 에덴동산에 있었을 때 인간은 행복했고 안전했다. 탕자가 아버지 품에 있을 때 그는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결국에 알았다.

어린 아이의 예를 들어보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 태어난 아이에게 부모님이 필요하다. 부모의 존재는 무엇인가? 아이에게 절대적인 존재이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부모는 상대적인 분이 아니다. 절대적인 분이시다. 그런데 스스로 먹고 살 만한 능력이 되면, 부모는 그에게 절대적 존재가 되지 않는다. 자기의 꿈과 능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상대적인 존재가 된다. 상대적인 존재란 비교할 대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 말고 다른 비교의 존재가 있다는 것이다.

탕자는 결국 방향을 통해서 아버지의 존재를 깨닫는다. 아무 조건없이 자신을 여전히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절대적인 부모의 사랑을 다시 깨닫는다. 다시 태어난 것이다. 다시 태어난 '거듭남'이란 바로 그와 같은 상태를 말한다. 이제 드디어 그 아버지를 만난 것이다. 알게된 것이다.

4. 인간은 '생존'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누구인지 날마다 인식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의 삶에 공급자임을 예수님을 통해 가르치셨다. 불안전, 불확실성의 시대에 하나님의 안전한 기초 위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다. 더 나아가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지 알기를 원하셨다.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는 말씀이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을 놓고 고민하는 '생존'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그래서 자유하다. 바로 이 상태가 믿음이다.

[마태복음 6:26]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5.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과의 전쟁

이제 현실을 보자. 세상은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이 없는 많은 사람이 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가난과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지 모른다. 이런 심각한 양식의 불균형은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고통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있는 곳은 남아돌아 주체를 못하고, 없는 곳은 생존이 어려울 정도로 없다. 이 심각한 불균형을 해결할 길이 있을까?

6. 오늘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셨겠는가?

[마가복음 6:34]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나온다. 말씀에 보니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한다. 이것이 오늘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적은 무엇이었는가?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셨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오병이어의 보잘 것 없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광야에 내렸던 만나의 기적과 같은 장면을 다시 연출하셨다.

[마가복음 6:41-43]

41. 예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42.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43.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말씀에 보니 42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이 열두 바구니에 가득했다. 남자만 오천명이 먹는 일이 일어났다.

7. '우리'의 의미를 바로 알자.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셨다. 잘 알아야 한다. '우리'란 의미는 '나와 너'가 함께 할 때이다. 다시 말해서 '나'가 들어가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공급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알고 있었고 또 그 공급안에 계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만족하지 않으시고 이 기도를 '우리'로 확장 시키셨다. 예수님의 마음안에 '우리'란 온 세상을 말한다. 나만 공급받으면 되는 일이 아니다.

기억하라. 오늘 한국교회는 '우리'를 상실한 복을 강조했다. 바로 '우리가 상실된 나만의 복'은 '기복주의'임을 명심하라. 이제 주기도문의 의미를 바로 알았다면 성도의 기도가 변화 되어야 한다. 나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온 열방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먹일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소서"라고 기도가 변해야 한다. 이것이 올바른 '주기도문'의 기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부탁 하셨다.

8. 믿음으로 기도하자.

이제 생존모드의 인생을 살지 말자. 주기도문은 결국 '믿음'에 관한 영역이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부르신 일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 곳에서 하나님은 공급자가 되어주셨다. 이 믿음은 어린아이가 자신을 먹여주고 공급해주는 분이 아빠 엄마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첫 순간과 같다. 그로 인한 안정감이 나의 존재를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된다.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안정감에 대한 문제이다. 안정감을 어디에 둘 것인가? 생존모드는 안정감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소유해도 불안하다. 그래서 끊임없이 안정감을 만든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주님 앞에 서자.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주린자를 살피고 먹이시는 분임을 깨닫자.